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추세와 특징*

초국적 이주자문학으로서 화인화문문학의 문학적 가능성

김혜준

dodami@pusan.ac.kr | 부산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1세기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추세, 특징, 문학적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다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개인적 체험 위주의 글쓰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인 전체에 대한 탐구라든가 중서 문화의 비교와 성찰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북미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북미 화인의 심층적인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3) 북미 화인의 신분 정체성, 중국과 북미 사이의 사회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4)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의 시각과 경험에 입각해서 과거의 중국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이라든가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 관찰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5) 초국적 세

*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필자의 기존 작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문구 면에서 일부 겹치는 곳이 있다. 필자의 기존 작업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의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 인식에 입각하여 화인 자신 및 인류 자체를 숙고하는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6) 화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가변적 다중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다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이 체험하는 갖가지 사건과 상황 및 정서적 파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새로운 ‘홈 찾음’을 시도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2) 북미 화인이 경험하는 소수자로서의 삶, 경제적 곤란, 종족 차별, 남녀 지위 변화라든가 중국과 북미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적응·혼종 등을 보여준다. (3)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삶의 다양한 면면들을 다룬다. 또 북미 주류사회의 영문문학에서 회피하는 사안을 다루기도 한다. (4)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그들의 유동적 혼종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비롯해서 화인화문문학은 오늘날 새로운 인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자들에 의한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일부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국가 문학의 모자이크가 아닌 새로운 ‘세계문학’의 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북미 화인화문소설, 화인화문문학, 초국적 이주자 문학, 중국문학, 화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자

1. 머리말 –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성황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은 초국적 이주자집단의 일원인 화인(華人, 한족계 초국적 이주자)이 화문(華文, 중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일컫는다. 화인화문문학은 1850년대 이후 화인이 중국 외 지역으로 대량 이주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¹⁾ 다만 20세기 초까지 화인 이주자의 대부분은 문맹의 육체노동자여서 작품이 많지 않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다.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화인 지식인이 늘어나면서 작품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화인은 중국인이고 화문문학은 중국문학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데다가 유학생 출신의 작품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아직 화인화문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이에 주목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가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다시금 중국 대륙 출신 화인이 대거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인화문문학의 창작과 열독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1997년 홍콩 반환 및 1999년 마카오 반환 문제와 맞물려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의 문학에 주목하게 되고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런 사정 속에서 21세기에 접어들자 화인화문문학은 중국 대륙, 타이완 등지에서는 가히 성황이라고 일컬을 정도가 되었다.

중국 대륙의 경우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學出版社), 화성출판사(花城出版社), 상하이문예출판사(上海文藝出版社),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 베이징10월문예출판사(北京十月文藝出版社) 등 유명 출판사와 『인민문학(人民文學)』, 『당대(當代)』, 『베이징문학(北京

1) 중국 근대 초기 화인의 이주는 명청 교체기의 사회적 전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1850년대 이후 대량 이민이 시작되었다. 필립 A. 쿤,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서울: 심산, 2014) 26~33 참고.

文學』, 『수확(收穫)], 『소설월보(小說月報)], 『화성(花城)], 『강남(江南)], 『10월(十月)], 『소설계(小說界)], 『종산(鍾山)] 등 대형 문학지를 통해 매년 10여 편의 장편소설과 수많은 중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있다. 수시로 그들의 작품과 이름이 각종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든가 문학상 수상자 명단에 등장하고 있으며, 종종 일부 작품이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²⁾ 또한 LA화문작가협회(洛杉磯華文作家協會), 캐나다 화예작가협회(加拿大華裔作家協會) 등 많은 화인화문문학 단체들은 중국작가협회(中國作家協會), 세계화문문학학회(世界華文文學學會) 등 중국 대륙의 문학단체나 학술단체와 빈번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³⁾ 더 나아가서 화인화문문학의 성황에 따라 이 분야의 학술 연구 역시 이미 ‘인기 학문(顯學)’이 되었다.⁴⁾ 중국 대륙에서는 압도적인 연구자 수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대학·연구소 등 각급 학술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이와 같은 점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동화대학(東華大學)을 비롯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중문학과(中文系)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화문학과(華文系)를 새로 설치할 정도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화인화문문학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을

2) 예를 들면 연거링(嚴歌苓)의 『청춘, 꽃보다 아름다운(芳華)』(2017), 『진링의 13 소녀(金陵十三釵)』(2007), 『나의 할아버지가 탈옥한 이야기(陸犯焉識)』(2011, 영화 『5일의 마중(歸來)』), 장링(張翎)의 『여진(餘震)』(2010, 영화 『대지진(唐山大地震)』) 등이 영화화되었고 한국에서도 상영되었다. 이하 한글 번역본이 있는 작품 및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는 기존의 번역 제목을 따른다.

3) 이상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86 (2018.7), 200~201; 豐雲, 「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 『山東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1-2 (2021.3), 55~56; 湯揚, 『北美新移民文學30年』(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0), 36~41 참고.

4) 湯揚, 『北美新移民文學30年』, 20; 陳遼, 「華文文學獨特風景線的呈現-評方忠『雅俗兼流』及其世界華文文學研究」,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7(2015.7), 64.

염두에 두면서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추세와 특징 및 문학적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처럼 성황을 보이고 있는 화인화문문학 중에서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이 가장 선도적이자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북미 화인화문소설이야말로 화인화문문학 성황의 지표이자 그것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각지에 산재한 화인화문문학은 시기별, 지역별, 범주별로 극히 복잡 다단한 상황을 보여왔고, 따라서 지나치게 검토 범위를 확장하다 보면 자칫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개체화하고, 체계화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일망감시(Panopticon)’적인 방식으로 전체 화인화문문학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성황 요인

21세기 들어 화인화문문학은 20세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예컨대 평원(豐雲)이 21세기의 신이민 화인화문소설을 다룬 그의 논문에서 거명한 화인작가가 대략 120명인데 그중 80여 명이 북미 화인작가이다.⁵⁾ 물론 이전에도 독자와 평론가의 주목을 받은 작가와 작품이 없지는 않았다. 20세기 중 후반 타이완 출신으로 이산적 유랑감·역사적 상실감·현실적 소외감·문화적 곤혹감을 표현했던 바이셴용(白先勇)·우리화(於梨華)·네

5) 豐雲, 「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 53~70 참고.

화링(聶華苓) 등과 그들의 소설이 그러하다.⁶⁾ 그렇지만 이들 작품은 대개 타이완의 유학생 문학으로 간주되었고, 전반적으로 볼 때 20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이 그다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대거 창작에 참여한 중국 대륙 출신 화인의 초기 소설은 체험 기록 또는 습작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작가의 노력과 이들 신규 작가의 성장이 합쳐져서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갈수록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예술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자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드디어 전체 화인화문문학의 성가를 드높이는 주력이 되었다.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이런 발전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작가 방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1) 이미 창작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한 일부 작가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은 후 창작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2) 이주 후 비로소 창작을 시작한 작가들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의 안정을 찾음과 동시에 일종의 문학적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창작 능력이 제고되었다. (3) 작가들이 차츰 북미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초국적 이주자로서 개개인의 생존 생활, 고독 향수, 분투 노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하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북미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과 화인 이주자 전체의 존재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탐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4) 작가들의 사고가 심화되면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과 감정 그 자체보다 그러한 사건과 감정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중서 문화의 차이, 충돌, 선택, 융합 등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게 되었다.

6)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50 (2011.9), 84 참고.

그다음으로 문학 여건 방면의 요인을 들 수 있다. (1) 중국 대륙 출신을 중심으로 하여 화인 이주자 자체가 급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화인 독자 역시 증가하였으며, 과거와 비교해서 지식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작가의 수도 늘어나고 작품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2) 기존 작가 외에 신규 작가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뉴욕의 북미 화인작가협회(北美華人作家協會), 샌프란시스코의 미국화문문예계협회(美國華文文藝界協會), 로스앤젤레스의 LA화문작가협회, 밴쿠버의 캐나다화예작가협회, 토론토의 토론토화인작가협회(多倫多華人作家協會) 등 북미 각지 문학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작가 간 경험 공유, 중국 문단 및 학계와의 교류, 출판기구와의 연계 등이 활성화되었다. (3) 전 세계적인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주로 지면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1990년대 이래 잇달아 개설된 화하문적(華夏文摘, 1991), 호런망중문신문조(互聯網中文新聞組, 1994), 신어사(新語絲, 1994), 감람수(橄欖樹, 1995), 문학성(文學城, 1997), 만유독자망(萬維讀者網, 1998), 문심사(文心社, 2000), 해외문헌(海外文軒, 2011), 문우원지(文友園地, 2015) 등 인터넷문학 사이트 및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품의 발표와 열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환경 방면의 요인을 들 수 있다. (1) 초국적 이주자의 급증, 일방향적인 단발성 이주 외에 재이주 역이주 등이 주 형태의 다양화, 망명·추방·난민·계약 노동 등 전통적인 비자 발적인 이주 외에 유학·자녀 교육·전문직 취업·출발지의 정치적 위험 회피·이주지의 안정된 생활 등 자발적인 이주의 증가, 교통수단 및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초국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등으로 초국적 이주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⁷⁾ (2) 이른바 중국 굴기와 더불어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은 물론이고

화인에 대한 관심 또한 제고되는 한편 중국 대륙, 타이완 및 화인 이주지 국가들이 각기 서로 다른 입장에서 화인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경쟁하게 되었다.⁸⁾ (3) 중국 대륙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위상 제고, 중국민족주의의 고양 등과 더불어 중국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특히 경쟁자로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병행하여 중국의 외부 확장 또는 중국과 세계를 잇는 교량이라는 시각에서 중국인의 화인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4) 상술한 상황 속에서 중국 대륙 정부가 1국 2체제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통치권 강화, 타이완과의 통일, 화인과의 연계 강화라는 방침 하에서 정책적으로 화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3.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추세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점차 조급하고 거친 형태의 창작에서 숙성되고 정련된 모습의 창작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새로 이주한 또는 새로 창작을 시작한 작가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도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건, 또 그로 인한 정서적 과동 등을 표현하면서 일종의

7)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92 (2020.1), 142 참고.

8) 화인화문학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필자의 화인화문문학 주장 외에 중국 대륙학계의 세계화문문학 주장, 북미 화인학계와 타이완학계의 시노폰 문학 주장과 동조,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국민문학 포섭 노력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회정」, 『중국현대문학』 80 (2017.1), 73~105;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80 (2017.4), 329~357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서전적인 글쓰기의 성향을 보이는 작품이 매우 많다. 그렇지만 과거와 비교해본다면 이런 개인 경험 위주의 소설들 역시 이전보다는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개인적 체험 위주의 글쓰기가 일정 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화인 전체에 대한 상상적 탐구라든가 중서 문화의 비교와 성찰로 나아가는 작품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편 『북미의 단풍나무(北美楓情)』(牧童歌謠, 2018)는 1990년대 초 미국 중서부의 대학에 유학을 온 화인 청년들이 학업과 정착의 과정에서 겪었던 학업에서의 분투, 생활에서의 고투, 이국에서의 애정, 직장에서의 고초, 가정에서의 갈등 및 북미에서 화인이 겪는 중서 문화의 충돌 등을 되돌아보고 있다.⁹⁾

초국적 이동의 편의성과 뉴미디어의 성행은 사람들의 삶, 특히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놓았고, 초국적 이주자의 문학으로서 화인화문문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화인화문문학의 다수 독자들—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지의 독자들—은 점차 이국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순한 정보라든가 실체가 모호한 이국적 풍경이나 터무니없는 환상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화인화문문학이 강점으로 삼았던 비교적 표층적인 호기심에 상응하는 이국적 소구력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중 한 가지는 이주지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이주자의 심층적인 심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장편 『아이비리그의 꿈(藤校逐夢)』(黃宗之·朱雪梅, 2016)은 세 젊은이와 그 가족의 가정 교육, 조

9) 海雲, 「無悔人生」, 牧童歌謠, 『北美楓情—一代留美學生的故事』(北京, 新華出版社, 2018);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중국현대문학』 100 (2022.1), 249 참고.

기 유학, 명문대 진학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갖가지 갈등과 비극 및 복잡한 심경 변화 등을 통해서 화인과 중국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과 북미의 교육 현실, 중서 문화의 차이와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등을 현실감이 넘치면서도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이런 추세는 특히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 상당히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일차적으로는 북미에 이주한 화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인작가의 숫자 역시 많아진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 문화 전통, 인종 환경 등 모든 방면에서 중국과 강렬하게 대비되는 곳이자 경쟁 대상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다수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북미를 배경으로 삼는다.¹⁰⁾ 이들 작품은 기본적으로 북미 화인 사회의 이주 생활과 관련한 것을 서술하면서 종종 북미와 중국 사이의 생활과 문화 등을 비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이 시기의 작품들이 단순 체험 기술이나 감정의 직설적 토로가 아닌 이주자의 신분 정체성, 출발지와 이주지 사이의 사회 문화적 차이 등등 초국적 이주 자체로 인한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溫哥華的私房菜)」(也斯, 2009)에서는 아마도 경제적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하고 혼자 홍콩으로 역이주를 한 남편과 밴쿠버에 남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인 사이에서 전개되는 미묘

10) 필자가 무작위로 131편의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을 대상으로 간략한 통계를 내어보았더니 북미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75.6%(99편),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20.6%(27편), 기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3.8%(5편)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혜준,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에 나타난 인종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 『중국소설논총』 68 (2022.12), 140의 통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 변화와 갈등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제도와 관념의 변화에 의한 것이자 근본적으로 출발지와 이주지와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사회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작품 역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사실 그간의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는 북미 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종 문제라든가 2001년 9·11테러라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등 북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나 사건을 다룬 소설이 별로 없었다.¹¹⁾ 그런데 예를 들면 원주민의 참상을 고발한 「잊혀진 곳(被遺忘的角落)」(劉慧琴, 2005), 흑인에 대한 화인의 편견을 예리하게 지적한 「살인게임(殺人遊戲)」(笑言, 2009), 사회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계, 태국계, 미얀마계, 크메르계,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소수종족 및 백인 빈곤층의 고투가 음울하게 전개되는 「종이학(紙鶴)」(凌波, 2005) 등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추세가 전면적이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에는 작품 편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작품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 화인화문소설 작가의 새로운 모색 중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화인 이주자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시각으로 출발지인 중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찰과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과거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중국 굴기에 따른 출발지 중국에 대한 관심 제고, 초국적 이동의 편의성에 따른 빈번한 중국 방문,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중

11)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혜준,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에 나타난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 136~139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 정보 획득 용이, 중국과의 초국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 유지, 일부 화인작가의 중국 장기 체류 및 역이주, 중국 출판계와 독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 등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소재 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향수와 회고 또는 문화대혁명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개인적 체험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중국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이라든가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 관찰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중국과 관련하여 향수, 회고, 특정 역사 사건의 개인적 체험이라든가 과거 성찰, 변화 관찰 등을 표현한 이런 작품들에도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의 시각과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역시 중국문화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지 말랬잖아요(你不叫我哭)」(楓雨, 2008)가 그렇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시 귀국한 화자는 이민 15년이라는 시차와 북미 생활에 익숙해진 화인의 감각으로 인해 달라진 그리고 낯선 도시 베이징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을 대할 때마다 흠칫흠칫한다. 그래도 화자는 어쨌든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과거의 거리를 찾아다니고 과거의 지인을 다시 만나면서 중국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곳은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상술한 추세들과 연관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추세가 있다. 화인 이주자로서 북미와 중국의 대비를 위주로 하면서도 이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초국적 이주자로서 전체 세계라는 차원에서 화인 자신 및 인류 자체를 성찰하는 일종의 초국적 세계 인식에 입각한 작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선 소설의 제재에서 비교적 잘 드러난다. 예를 들면 집주인과 너구리 가족 사이에서 온갖 분란이 벌어지는 것을 서술한 중편 「너구리(獐)」(陳河, 2013), 조기 유

학생 출신의 대학생이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어린 호랑이에게 갈수록 집착하면서 정작 사람들과는 소원해지는 것을 그린 중편 「호랑이 여동생 ‘벵골’ (虎妹孟加拉)」(陳謙, 2016), 두 세대 두 쌍의 인디언과 백인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북미 인디언의 자연친화적인 생활과 문화를 긍정하고 서구 백인의 자연파괴적인 침략과 문명을 비판한 장편 『시애틀 추장의 예언(西雅圖酋長的讖語)』(黃鶴峰, 2013) 등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는 이런 작품들에서 보다시피 생태 환경, 기후 문제, 환경 오염 등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다. 또 이런 변화는 외형적인 등장인물과 활동 장소의 다양성에서도 금세 드러난다. 예를 들면 「보루(礪堡)」(陳河, 2018)에는 알바니아의 화인 외에 중국인, 알바니아인, 짐시족 및 아프리카, 아랍, 발칸반도 출신의 다양한 인물들이 출현하며, 그들의 활동지는 알바니아 외에 중국, 이태리, 스위스, 그리스, 프랑스, 스웨덴, 발칸반도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의 내륙 도시인 이우(義烏)에서 온갖 구두 언어와 신체 언어를 섞어가며 서로 무역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전체 세계 차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추세는 화인의 문화적 신분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 출발지와 이주지에 대한 양자택일적 정체성을 표현하던 데서 이제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가변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예컨대 「위슈가 로즈마리일 때(當宇秀是露絲瑪麗的時候)」(宇秀, 2009)의 캐나다로 이주한 후 화문 작가이자 피혁가게 점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화자라든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陳浩泉, 2009)의 재혼을 통해 결합한 홍콩계 부자와 타이완계 모자의 가정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전자에서 화자는 상

황에 따라 중국 이름과 서양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두 개의 이름·신분·정체성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그런데 결국은 제법 오랫동안 중국 이름으로서 살고자 했지만 차츰 두 이름의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후자에서 부모는 사업상 대륙·타이완·홍콩·밴쿠버를 수시로 오가고 아이들은 밴쿠버에서 여러 종족 출신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언어(타이완과 홍콩의 방언, 중국 표준어, 영어)를 섞어 쓴다.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국적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아직 어린 형제이자 형제 아닌 두 형제가 장차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세는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 「반역의 장미(叛逆玫瑰)」(孫博, 2005)의 남녀 주인공인 타이완 출신 마산(馬珊)과 홍콩 출신 쓰투젠(司徒劍)에서 보듯이 출발지와 이주지를 막론하고(심지어 경유지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사회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화인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또 북미와 중국을 오가며 생활한다거나 이에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작가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초국적 이주자로서 단순히 중국인 또는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들 자신의 특별한 경험 및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¹²⁾ 예컨대 장편 『힐러리, 미쓰와, 그리고 나(希拉里·密和·我)』(薛憶滄, 2016)의 작가는 캐나다 화인으로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작품에서 설령 화인이 다시 출발지 중국으로 역이주하더라도 그곳은 이미 또 다른 하나의 이주지일 따름이며, 그들은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영원히 ‘흠 떠남’, ‘흠 상실’, ‘흠 찾

12) 陳夢, 「新移民海歸作家在當代文壇異軍突起」, 『蘭州學刊』 2014-1 (2014.1), 204~206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이런 유의 작가가 수십 명에 달하며, (1) 查建英·嚴歌苓·劉索拉·薛海翔·盧新華·嚴力·顧月華·劉荒田·張辛欣 등 왕대형(교차 거주형) (2) 薛海翔·北島 등 귀업형 (3) 少君·呂紅·秋塵·施雨 등 유학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음'을 반복하고 있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라는 것을 보여준다.¹³⁾

4.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특징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보여준다. 초국적 이주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흠 떠남'을 실행하지만 이미 되돌아갈 흠이 없는 '흠 상실'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새로운 '흠 찾음'을 시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체험하는 갖가지 사건과 상황 및 정서적 파동 등을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기대, 이질적 환경의 적응, 언어적인 장애, 사회적 지위의 하락, 경제적인 어려움, 법적 신분의 불안정성, 문화적인 충격과 갈등, 소수자로서의 소외, 물리적으로 분산된 초국적 가족의 형성, 빈번한 가정의 위기와 재편,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고독과 고통, 고국에 대한 향수, 가치관의 혼돈, 정체성의 혼란…… 등등이 그렇다. 물론 이런 것들은 1세대 초국적 이주자 또는 작가가 공통으로 겪는 일이라는 점에서 20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도 대부분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각 면에서는 이미 달라졌거나 새로운 것들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초국적 이주자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한 지식, 정보, 재력 및 초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상태에서 이주를 하는데, 「빅터를 위하여(爲了維克托)」(王芫, 2017)에서 아들 빅

13) 湯僧, 『北美新移民文學30年』, 178~179 참고. 이 소설은 화자가 회고하는 방식으로 몬트리올의 로열 산에서 우연히 만난 백인 여성 힐러리, 일본계 여성 미즈와, 그리고 화인 남성 '나' 세 인물의 비극적 과거사와 트라우마를 교차 서술해나간다. 그들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중국이 항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터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사전 답사까지 하는 주인공
츄전핑(邱振鋒) 가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초국적 이주자 중에서도 특히 북미
화인의 삶을 보여준다. 출발지 중국에서의 다수자로서 삶의 관성과
이주지 북미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삶, 경제적 곤란, 종족 차별, 남녀
지위 변화라든가 중국과 북미 또는 중서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적응·혼종 및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찰과 성찰,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 및 중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화인 삶의 변
화 등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출발지 중국과 이
주지 북미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중편 「라오
강의 철학(老康的哲學)」(袁勤梅, 2009)이 그러하다.¹⁴⁾ 소설은 중국 전
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대혁명 세대인 아버지 라오강, 반전통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돈과 권력을 우선시하는 개혁개방 세대인 친아
들 강징차오(康勁草), 서양 가치 관념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의붓아들 다이샤오관(戴小觀) 및 의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인 화
자 ‘나(我)’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충돌, 논쟁, 조정, 타협을 서
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규 직업이 철학 교수인 작가는 그에
걸맞게 철학적인 용어와 논리로 끊임없이 서양문화의 장점과 중국
문화의 폐단을 대비해나가면서 결국 화인의 서양문화 수용 내지 중
서의 문화 융합은 필연적이며 화인의 정체성 변화 역시 불가피한
것임을 역설한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삶의 다양한 면면들을 보여준
다. 소수종족 차별 비판, 경제적 불평등 지적, 여성의 젠더 의식 각

14) 이 소설에 관한 일부 설명은 張慧, 「異域文化下的“父子”衝突—評『老康的哲學』」, 『電影評
介』 14 (2010.7), 99~101 참고.

성, 아메리칸드림이나 ‘중국몽’에 대한 회의 등과 관련한 것이 그렇다. 또 문화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비극과 트라우마 및 그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는 작품들은 이런 제재를 아예 회피하거나 혹은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는 중국문학의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중편 「고모부(姑父)」(王瑞芸, 2005)는 비극적인 주인공 고모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문화대혁명 이전부터 계속된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중편 「테레사의 불량아(特蕾莎的流氓犯)」(陳謙, 2008)는 개인적 행위에 대한 두 인물의 참회 의식을 통해서 문화대혁명의 책임이 막연히 시대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있음을 지적한다.¹⁵⁾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주류사회의 영문문학에서 회피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안들을 다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류사회의 영문문학에서 유색인종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성애 문제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¹⁶⁾ 유부남인 화인 남성이 유부녀인 백인 여성을 절륜한 능력과 초인적인 정력으로 끊임없이 황홀하게 만든다는 「한집 남녀(同屋男女)」(冰凌, 2005)와 같은 소설에서 보듯이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는 이를 거침없이 다루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북미 화인화문소설이 북미 또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 등지 주류사회의 간섭과 제약에서 다소간 비껴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초국적 세계 인식과 더불어 특히 특정 국민국가의 문학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동적 혼종적(가변적 다중적) 정체성을 보여준다.¹⁷⁾ 20세기 중반까지 초국적 이주자는 이주

15) 李曉鳴, 「遙望歷史的個人表述—當美國新移民作家表述文革」, 『華文文學』 2013- (2013.2), 72~79 참고.

16) 尹曉煌, 「美國華語文學之歷史與現狀」, 『華僑華人歷史研究』 2006-3 (2006.9), 5.

17) 이하 이 단락의 내용은 주로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250~256 참고.

지에 거주하면서도 늘 출발지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초국적 이주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주지에 속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발지와 거주지 양쪽 모두에 대해서 자신이 주변적인 위치에 처해 있음을 의식한다. 만일 전자가 물리적으로도 영원히 출발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체적·객관적 디아스포라’였다고 한다면, 후자는 물리적으로는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거나 최소한 오갈 수는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주관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자발적 이주가 대폭 증가한 데다가, 최신 정보 획득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고, 수시로 이주지와 출발지를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며, 단발성 이주 외에 재이주와 역이주 등 이주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이들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또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이동이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출발지—(경유지)—이주지와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이 모든 곳을 자원의 획득처로 활용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초국적 이주자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들의 개인 정체성 및 집단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신체적·객관적 디아스포라’가 고립형 정체성을, ‘정신적·주관적 디아스포라’가 이중형 정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혼종형·유동형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루(礪堡)」(陳河, 2018)의 주인공 아리(阿禮)가 그렇다. 그는 알바니아로 이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득불 중국으로 역이주한 상태다. 그런데 그는 이미 내게는 집이 없다고 하면서 언젠가 다시 집시족인 아내와 함께 떠돌고 있는 아들을 찾아 나설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

함께 유랑할 결심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특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비롯해서 초국적 이주자 문학 자체가 서구 내셔널리즘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국민국가를 단위로 문학의 구획화를 정당화하고 국민문학의 모자이크로서 세계문학을 상상하는 기존의 문학 관념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취약점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북미와 중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종의 이중 주변화 상태에 처해 있다. 북미의 주류사회에서는 예전부터 극소수의 학자와 비평가를 제외하면 거의 관심이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화문(중문) 자체를 알지 못하는 데다가 전문가조차도 화인화문소설이 화인 생활보다는 고국에 대한 향수와 회고에 치중할 뿐이라며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중국에서는 외형적으로 일단 과거에 비해 성황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 화인화문소설이 가진 문학적 독자성이나 예술성까지 확고하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비롯해서 화인화문문학을 중국문학의 외부 확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작품의 언어, 스토리, 담론에 관한 예술적 기준을 중국문학의 그것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대륙의 유명학자 천쓰허(陳思和)는 최소한 북미와 유럽 지역 이민 1세대 화인작가의 화문문학은 아직 이주국의 문학 시스템

18) 尹曉煌, 「美國華語文學之歷史與現狀」, 2.

에 녹아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국당대문학의 한 지류라고 주장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언어(중문), 미적 감수성(민족성), 표현 내용, 주요 발표지, 주요 독자, 주로 영향을 주는 곳이라는 여섯 가지를 내세운다.¹⁹⁾ 물론 이런 이중 주변화에는 외부적인 요인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북미 화인화문소설 자체가 가진 단점 또는 약점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많은 작가가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활 체험과 정서 반응이 유사한 상태에서 자기 토로적이고 자전적인 글쓰기에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북미 화인화문소설에는 소재에서부터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동소이한 일종의 상투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 많은 작품이 남녀 애정과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북미 이민/유학 + 남녀 만남/이별 + 우여곡절/에피소드라는 도식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배경만 북미일 뿐 실제로는 기존의 중국문학에서 익숙한 애정소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종의 통속화 현상도 나타난다. 만일 이런 현상들이 주로 작가의 창작 역량 미흡이라든가 이주자로서의 체험과 성찰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능력 있는 작가 중 일부에게서는 또 다른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인기 작가의 소설에서는 출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의 관성적 글쓰기 스타일 때문이든지 간에 사건·인물·배경만 조금씩 바뀔 뿐 관점이나 의의 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찾기 어려운 일종의 자기 복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⁰⁾

19) 陳思和, 「旅外華語文學之我見—兼答徐學清的商榷」, 『中國比較文學』 2016-3 (2016.7), 2~10.

20) 이상 상투화, 도식화, 자기 복제 현상에 관해서는 주로 豐雲, 「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 56~57, 61 참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문학의 상투화, 도식화, 자기 복제 등의 현상은 시기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항상 존재해온 문제이다. 달리 말해서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개별 작품들이 모두 우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작품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지, 탁월한 작품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기성의 익숙한 체제와 규칙에 대해 그 온전성과 온당성을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낫설고 불온하지만 새로운 전망을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상상해내는 이른바 예술로서의 ‘불온성’을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제시해주는지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다음에서 언급할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대해 가해지는 제약은 주의할 만한 것이다.

북미 화인작가는 절대다수가 비전업 작가로, 이주자로서 번망하고 곤고한 생활 속에서도 창작에 분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생활과 불충분한 시간으로 인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창작은 매우 어렵다. 특히 고료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의 발표 자체가 쉽지 않다.²¹⁾ 북미에는 작품을 게재하거나 출판할 수 있는 지면과 출판 기구를 찾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들의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독자층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개별 작품이나 개인 작품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문학 단체조차 북미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작품선으로 펴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화인작가나 문학 단체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사리 중국 출판계의

21) 캐나다 화인작가 류후이친(劉慧琴)은 2006년 당시에도 북미 화인화문작가에게 가장 큰 난관은 출판으로, 고료 수입도 없고 발표 지면도 부족하여 출신지에 의탁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劉慧琴, 「淺談加拿大華文文學」, 『華文文學』 2006-4 (2006.8), 11~12 참고.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상당한 금액의 자비를 들여 출판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

이런 상황 속에서 북미 화인작가는 불가피하게 중국 출판계의 요구와 독자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화인작가의 창작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 출판계 및 독자와 타협 또는 영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중국 독서계의 인기 소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거나 창작 과정에서 중국 독자들이 북미 사회 또는 북미 화인에 대해 갖는 환상과 편견 또는 중국에 대해 갖는 민족주의적 자부심 따위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초기 화인의 신산한 역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려낸 장편 『푸쌍(扶桑)』(嚴歌苓, 1995)과 장편 『골드마운틴(金山)』(張翎, 2009) 이래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두 작가 엔저링이나 장링조차도 피해 갈 수가 없었다.²³⁾ 심한 경우에는 중국 대륙이나 타이완의 관방과 평단을 의식하여 특정 소재를 회피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종의 자기 검열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22) 여러 권의 캐나다 화인화문작가의 소설선과 평론선을 펴낸 천하오취완(陳浩泉)의 경험에 따르면 경비 염출과 원고 수집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陳浩泉, 『編後記』,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加華作家作品選一集』(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234~235 참고.

23) 장편 『꽃과 소년(花兒與少年)』(嚴歌苓, 2004) 후기에서 작가는 화인이 겪고 있는 생활적·심리적·문화적 이산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이 소설에서 실제로 보여준 것은 대부분 미국에 대한 작가의 오인·편견과 더불어 중국 대륙 독자의 상상·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었다. 「리처드슨 순경(警探理查遜)」(張翎, 2003)은 한 백인 경찰이 성폭행당하고도 침묵하는 한 화인 여성을 조사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보자면 이는 정의로운 백인 남성이 무지한 동양 여성을 구원해주는 이야기이자, 젊은 백인 남성이 늙은 중국인 아버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보호자가 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 두 작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다음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109~110;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123~124; 김혜준,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에 나타난 인종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 144~145, 153.

일부 작가의 작품에서는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이 인물의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부각시키기 위한 실체 불분명의 시대적 배경으로만 처리된다. 요컨대 북미 화인작가에게는 현실적으로 독자 및 출판기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이 이들의 소설 창작에 제법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문제가 외부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미 화인작가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북미 화인작가는 자기 자신을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선두에서 있는 사람, 서구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 첩병 같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 즉 중국 이야기를 서구 사회에 전파하고 자신이 접촉한 서구 사회의 면면들을 중국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1세기 미국 LA 화문작가 작품선(新世紀美國洛杉磯華文作家作品選)』(朱文斌等, 2018)의 서문에서 당시 LA화문작가협회 회장이던 베이아오(北奧)는 “중화문화를 선양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자 모든 해외 화인의 신성한 책무이다. (...) LA화문작가협회는 이런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작품에는 종종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의 관점보다 해외 체류자로서 중국인의 관점이 앞서게 되고, 중국과 서구의 대비 및 중국인과 서구인의 경쟁이라는 구도가 강조되거나 심지어 중국민족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받아들인 그러나 편견이 개입된 서구적 관점에 근거해서 북미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전망을 표출하거나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현장 부재적인 어설픈 판단을 서술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소설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들—화인(독자)의 각종 절실한 사안들과 사상 감정이 매몰

되고,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 특유의 경험과 시각이 증발되어 버린다. 예를 들면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의 제안에 따라 창작한 장편 『청춘, 꽃보다 아름다운(芳華)』(嚴歌苓, 2017)은 문화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탐색이 결여되고, 초국적 이주자로서 작가의 다중적인 문화적 신분과 다원적인 시각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박한 소비 상품이 되고 말았다.²⁴⁾

6. 맺음말 –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의의와 가능성

21세기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취약점 또한 여전하다. 이는 북미 화인화문소설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작가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 북미 화인화문소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과 의의에 대한 북미 화인작가들의 명확한 각성과 이를 창작에서 표현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화인화문문학을 오로지 중국, 중국인 및 중국문화와의 관계에서만 보려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학의 언

24) 朱崇科, 「論新移民文學生產的危與機」,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0-3 (2020.4), 7 참고.

어가 특정 문학 범주의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미 화인화문소설 또는 화인화문문학의 관건은 화문(중문)이라는 언어가 아니다. 관건은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의 생존 상황, 문화 상황, 신분 상황 및 초국적 세계 시대의 인류의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문학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문학의 외부 연장도 아니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문학도 아니고, 중국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만일 굳이 기성의 국민국가 문학이라는 기준에 따르자면 오히려 그것은 각 이주국의 문학에 속한다. 말하자면 북미 화인화문소설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수종족 문학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런 식의 분류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인화문문학에는 이런 성격이 있음은 틀림없다. 화인화문문학은 잔모하메드와 르로이드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종족에 의한 지배와 배제라는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된 소수종족이 ‘자기 자신의 재현’에 노력하고 ‘소수성’을 구축해나가는 행위의 한 가지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것처럼, 영토성·정치성·집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류의 문학(또는 기성의 문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학을 혁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소수적인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⁵⁾ 그런데 화인화문문학에는 이러한 소수종족의 자기 재현 성격이라

25) 이상 잔모하메드와 르로이드 및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에 관해서는 Abdul R. JanMohamed & David Lloyd eds., *The Nature and Context of Minority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ix~xi;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이진경 옮김,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2004), 43~69;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101~104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든가 소수적인 문학의 성격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화인화문 문학은 오늘날 새로운 인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자들에 의한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일부라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는 자원·정보·사람의 초국적인 이동이 일상화,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에서부터 인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세계 인식이 형성되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문화 혼종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주자 이주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화인을 비롯한 초국적 이주자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출발지—(경유지)—이주지와의 초국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곳을 자원의 획득처로 활용하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고집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종적인 또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인을 위시해서 초국적 이주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와 민족 관념의 유연화는 인류의 분류와 범주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곧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집단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인간집단이 스스로를 의식하고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학 현상이 초국적 이주자 문학인 것이다. 요컨대 화인화문문학을 비롯해서 초국적 이주자 문학은 그 어떤 국민국가 문학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국민국가 문학 관념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문학이 아니면 모두 비국민국가 문학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발상에서) 단순히 비국민국가 문학이라는 범주로 귀속시킬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 문학이다.²⁶⁾ 따라서 그것은 지금껏 서구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26) 초국적 이주자 문학과 국민국가 문학/비국민국가 문학에 관한 아이디어는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국민)문학의 보편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안과밖』 28 (2010.5),

국민국가 문학을 단위로 구성되었던 그런 ‘세계문학’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문학’을 상상 또는 도출과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²⁷⁾

북미 화인화문소설 작가는 이제 자신의 문학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창작에서 그러한 점을 의식적으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종종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그들의 작품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미 화인화문소설 작가가 전 세계 화문독자(특히 중국의 독자)를 자신의 독자로 상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초국적 이주자이고, 자신의 창작은 초국적 이주자 문학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중국문학이나 북미의 문학을 답습하거나 그것에 영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과 북미 이 두 지역의 관계에 한정해서 화인을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 초국적 이주자집단이라는 차원에서 화인을 보아야 한다. 기성의 문학 언어와 장치에 집착하지 말고 초국적 이주자로서 작가 자신의 새로운 경험, 감수, 관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북미에 대한 이국적 환상, 표층적 호기심, 중국민족주의적 편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인의 북미 적응’이 아니

168의 다음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랜스내셔널 문학이 마치 (...) 국가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든 문학들, 즉 ‘국민문학’ 속에 분명하게 소속되지 않는 ‘그 나머지’ 문학들을 다 아우르는 용어인 양 이해하는 생각이야말로, ‘트랜스내셔널 문학’을 소위 ‘내셔널 문학’으로부터 기계적으로 구분짓고, 이 둘 간의 역동적이고 문제적인 관계를 간과하는 종류의 생각이다.”

27) 초국적 이주자 문학과 새로운 ‘세계문학’의 관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235~236, 257~259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 ‘화인의 북미 표현’이라는 차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인종 문제를 비롯하여 북미 사회의 각종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연구자 역시 마찬가지다. 화인화문문학 연구자는 물론이고 디아스포라문학 또는 초국적 이주자 문학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한국학자든 아니든 간에 혹은 각자 어떤 입각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신의 연구 대상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세계문학’의 촉발 가능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연구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각 연구자의 지향점이 분명해지고 그 연구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50 (2011.9), 77~116.
- _____,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80 (2017.1), 73~105.
- _____,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80 (2017.4), 329~357.
- _____,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86 (2018.7), 193~220.
- _____,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92 (2020.1), 121~148.
- _____,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중국현대문학』 100 (2022.1), 233~265.
- _____,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에 나타난 인종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 『중국소설논총』 68 (2022.12), 135~164.
- 들뢰즈, 질; 펠릭스 가타리, 이진경 옮김,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국민)문학의 보편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안과밖』 28 (2010.5), 165~197.
- 천하오취안 외, 김혜준 외 옮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6.5).
- 쿤, 필립 A.,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서울, 삼산, 2014).
- 푸코, 미셸,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2009).
- 古大勇, 「生態關懷與民族寓言-論榕籍美華作家黃鶴峰的『西雅圖酋長的讖語』」, 『淮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2017.4), 101~104.
- 劉慧琴, 「淺談加拿大華文文學」, 『華文文學』 2006-4 (2006.8), 11~13.
- 李曉鷗, 「遙望歷史的個人表述-當美國新移民作家表述文革」, 『華文文學』 2013- (2013.2), 72~79.
- 嚴歌苓, 『花兒與少年』 (北京, 崑崙, 2004).
- 葉周主 編, 『洛杉磯華文作家作品選集』 (北京, 作家出版社, 2012.6).
- 尹曉煌, 「美國華語文學之歷史與現狀」, 『華僑華人歷史研究』 2006-3 (2006.9), 1~11.

- 融融·陳瑞琳 主編,『一代飛鴻—北美中國大陸新移民作家短篇小說精選述評』(北京,中國文聯出版社,2008.9 簡體再版).
- 張慧,「異域文化下的“父子”衝突—評『老康的哲學』」,『電影評介』14 (2010.7), 99~101.
- 周潔茹 主編,『香港文學』(美華文協小說專集) 419 (2019.11), 4~38.
- 朱文斌等 主編,『新世紀美國洛杉磯華文作家作品選』(合肥,安徽文藝出版社,2018).
- 朱崇科,「論新移民文學生產的危與機」,『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0-3 (2020.4), 1~9.
- 曾曉文,「鳥巢動遷」,『江南』2019-4 (2019.7), 69~75.
- 陳謙,「虎妹孟加拉」,『北京文學』(精彩閱讀) 2016-11 (2016.11), 4~23.
- 陳遠,「華文文學獨特風景線的呈現—評方忠『雅俗彙流』及其世界華文文學研究」,『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5-7 (2015.7), 64~66.
- 陳夢,「新移民海歸作家在當代文壇異軍突起」,『蘭州學刊』2014-1 (2014.1), 204~206.
- 陳思和,「旅外華語文學之我見—兼答徐學清的高樞」,『中國比較文學』2016-3 (2016.7), 2~10.
- 陳瑞琳 主編,『當代海外作家精品選讀』(長春,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2011).
- 陳浩泉,「編後記」,陳浩泉 主編,『楓華文集—加華作家作品選一集』(溫哥華,加拿大華裔作家協會,1999), 234~235.
- _____,『尋找伊甸園』(溫哥華,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 _____, 主編,『白雪紅楓—加華作家作品選二集』(溫哥華,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3).
- _____, 主編,『楓雨同路—加華作家小說選』(溫哥華,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9).
- _____, 主編,『楓華文集—加華作家作品選一集』(溫哥華,加拿大華裔作家協會,1999).
- 湯俏,『北美新移民文學30年』(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20).
- 豐雲,「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山東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1-2 (2021.3), 53~70.
- 夏商主 編,『海外華語小說年展 2019』(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19).
- 海雲,「無悔人生,牧童歌謠」,『北美楓情—一代留美學生的故事』(北京,新華出版社,2018).
- 黃萬華,「三度梅開春正濃—20世紀美國華文文學歷史輪廓的描述」,黃萬華 主編,『美國華文文學論』(濟南,山東文藝出版社,2000), 3~13.
- 黃運基,『奔流』(沈陽,沈陽出版社,1996).
- 黃宗之·北奧 主編,『美國洛杉磯華文作家協會三十周年紀念文集』(West Vancouver,北美科發出版集團,2022.1).
- 黃宗之·朱雪梅,『藤校逐夢』(北京,作家出版社,2018.3)
- JanMohamed, Abdul R. & David Lloyd eds., *The Nature and Context of Minority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21th Century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Kim, Hye-Joon(Pusan National University) | dodami@pusan.ac.kr

This paper examined the trend, characteristics, and literary possibilities of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that showed rapi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21th Century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shows the following trends. (1) While personal experience-oriented writing continues, there is a new tendency to explore the whole overseas Chinese or to compare and contemplate on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2) It expresses the in-depth knowledge of North America and the in-depth psychology of North American Chinese. (3)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works that express deep understanding and emotions about the identity of North American Chinese and the socio-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North America. (4) More and more works reflect on the past China or observe the changing China based on the perspective and experience of overseas Chinese as transnational migrants. (5) More and more works reflect on overseas Chinese and mankind itself based on the transnational consciousness. (6) It often expresses the dual identity of overseas Chinese, and it even tends to express a variable and multiple identity.

21th Century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shows following characteristics. (1) It expresses the attempt to find a new "home" to which the body and mind can be depened on constantly through various events, situations, and emotional waves experienced by overseas Chinese. (2) It shows the life as a minority, economic difficulties, racial discrimination, and changes in gender status experienced by North American Chinese, as well as conflicts, adaptation, and hybridization resulting from socio-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North America. (3) It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life that do not exist or are rarely addressed in China, as well as issues that are avoided in North American English literature. (4) It shows the transnational consciousness of 21th Century transnational migrants and their variable and multiple identity.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including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is a part of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by transnational migrants who are emerging

as a new human group today. It has multiple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limited to the literature of any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It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world literature” that is not composed of a mosaic of national literatures.

Keywords :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overseas Chinese, diaspora, transnational migrants

투고접수: 2023.01.11.
심사완료: 2023.02.17.
게재결정: 2023.02.17.